

사라지는 것은 흔적을 남긴다(1)



부산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팀 원장
전용문(소설가)

천석꾼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김현수는 성장과정에서 별다른 굴곡을 겪지 않고 자라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1971년이였다. 집안은 그때까지 대대로 이어져온 풍요를 고스란히 지키고 있었는데, 예외가 있었다면 형인 김용수의 이탈이 문제였다.

김현수는 인근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그 곳 지방도시의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 상당히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모하는 사춘기를 보냈다.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땀을 흘리며 운동경기에 열중하고 있을 때도 그만은 혼자 도서관에 묻혀 학과공부를 하던지, 공부에 싫증이 나면 문학서적을 탐독했다. 학교 도서관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는 유난히 푸른색으로 빛났다. 그는 창가에 앉아 날이 저물도록 책 속에 파묻혀 지냈다. 책을 읽다가 가끔 창 너머로 시선을 돌려 바다를 내려다보곤 했는데,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바다는 잔파도를 일렁이며 꿈꾸듯 출렁거리고 있었다.

해거름 녘에 그는 혼자 가방을 끼고 낮에 익히 보아두었던 바다를 낀 해변을 걸었다. 바다 갈매기가 때때로 그의 머리 위를 후드득 날갯짓을 하며 먼 바다 쪽을 향해 비상해갔다.

그는 혼자 해변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때때로 바다물이 휩쓸고 지나간 모래톱에 앉아 오랜 시간 혼자서 상념에 젖어 있기도 했다.

그의 사춘기는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외롭고도 고독하게 보냈는데, 그것은 그 자신이 스스로 택한 길이기도 했다. 그즈음 그의 형인 김용수는 아버지의 돈을 훔쳐내어 방탕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애꾸눈인 김용수. 초등학교 시절 머슴의 아들과 목숨을 건 대결을 벌인 후에 한 쪽 눈을 잃고 간신히 목숨만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는 그 일이 일어난 후 쉽게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다. 병원에서 한 쪽 눈을 들어내는 수술을 받고 퇴원한 다음에 김용수는 심한 대인공포증에 시달리며 한동안 집안에만 처박혀 지내는 세월을 보냈다.

한참이나 시간이 지나간 후에야 김용수는 학교라는 대중이 모인 공공장소에 다시 나타날 수 있었고, 시골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시내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빼뺏어지기 시작한

김용수의 행실은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그 도가 지나쳐 아버지가 수시로 학교에 불러 다녀야 했다.

고등학생이 된 김용수는 갖가지 비행을 저지르기를 서슴치 않았는데, 길거리에서 싸움질 따위는 다반사였다. 학교에도 잘 나가지 않아 아무 곳이나 던져둔 책가방을 누군가가 열어보았을 때 그곳에서 쏟아져 나온 물건들은 사람들을 충분히 경악시키고도 남을 만 했다. 담배꽂초 정도야 그렇다 하더라도, 생선회칼이며 자전거 체인 줄이며, 작은 손도끼, 날 세운삼발이 포크 따위가 마구잡이로 나왔는데 그 모든 것은 싸움에 소용되는 물건들이었다.

온갖 말썽을 부리며 그래도 학교를 쫓겨나지 않고 간신히 붙어 있던 김용수는 급기야 기이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

시내의 외딴집에 여학생 한 명을 감금해두고 여러 명의 남학생들이 번갈아가며 난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발각된 후, 그것에 연루된 김용수는 고 3 때 퇴학을 당했다.

재력이 단단했던 아버지가 김용수를 형편없는 시골 종합고등학교로 전학시켰다. 전학 간 학교에 이름을 얹어두고 있던 했으나 학교에 나가는 날보다 밖에서 노는 날들이 더 많았다. 등교 때마다 학교와는 정반대 되는 도시로 나가 불량배들과 휩쓸려 다니며 분탕질을 했다. 아버지가 그를 끌어앉히고 면박을 주며 수없이 체벌을 가했으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

한 쪽 눈만이 성한 그는 절대로 사람을 직시하지 않는 습성이 있었다. 아버지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꾸짖는 아버지를 향해 한 번도 얼굴을 들고 똑바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 한 쪽 눈이 없다는 신체에 대한 지나친 수치심 때문이 아니면, 사람을 마주볼 수 없도록 자신을 비하시켜버리는 정신적 열등감의 결과였다. 아버지가 달래고 열렸다.

- 용수야. 이제 몇 달만 참으면 졸업인데 제발 그때까지만 학교에 열심히 다니도록 해라. 졸업 후에는 네가 무슨 짓을 하던 상관 않겠다.

- 개 눈알 박은 애꾸 주제에 학교를 졸업하면 뭘 해요?

- 이놈아. 그 일이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와서 누구를 탓하며 원망할 것이냐? 세상 사람한테 다 물어보아도 고개를 흔들고 말 일인데 옛날 사건을 들춰내 지금 무얼 하겠다는 거냐? 그 머슴의 자식을 데리고 와서 목이라도 졸라 죽여야 속 시원하겠니?

- 필요 없어요. 그 놈이야 평생 남의 땅 파먹고 살 두더지 신세인데 복수고 뭐고 생각할 상대가 못돼요.

-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불만인데 학교공부는 아예 작파하고 허구한 날 싸움질이나 하며 못된 아이들과 싸 돌아다니느냐?

- 모르겠어요. 내 인생 내가 살 텐데 될 대로 되라지요. 아버지는 제 일에 제발 상관 마세요.

기가 찬 아버지가 말문을 닫았다. 때리고 달래고 열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누대에 걸쳐 영화를 누린 이 집안이 김용수같은 아들이, 그것도 집 안을 물려받을 장자가 개망나니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노릇이었으나 엄연한 현실로 나타난 현상이었으니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김용수는 형편없는 시골 종합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했다. 대학 진학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졸업 후에 곧바로 집을 뛰쳐나왔다. 길고 긴 가출의 첫 시작이었으며, 고삐를 풀어낸 방임의 세계로 진입하는 출발점이었다. 어디에서 먹고 잠드는 지 알 수 없이 떠돌다가 며칠 만에 한 번씩 집으로 들어와서는 돈이든 패물이든 가리지 않고 들고 나갔다.

중학교에 다니던 김현수가 한 번은 그의 형인 김용수가 부모님이 부재한 집에서 장롱을 뒤지며 돈을 찾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어린 동생이 형의 팔목을 잡고 애걸했다.

- 형. 제발 나쁜 짓은 그만하고 정신 좀 차려.
- 정신 차리라고? 공부 잘하는 너나 커서 부모님 잘 모시도록 해. 나는 어차피 벗어나버린 버린 인생이야.
- 형 나이 이제 겨우 몇 살이라고 그런 소릴 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새 사람이 되면 좋잖아.
- 야, 이 철 없는 꼬마야. 내 마음이 어떡하다는 걸 네가 알기나 하니? 입 다물고 너는 네 일이나 열심히 해. 내 몫 내가 챙겨 갖고 갈 테니 잔소리 그만하고 빨리 꺼져.
- 어릴 때의 형은 이러지 않았잖아. 무엇 때문에 형은 이 모양 이 꼴로 돌변해버렸어?
- 착한 아가야. 내가 왜 이 꼴이 되었는지 이야기 해주렴. 너도 알다시피 머슴의 아들한테 싸움에 지고 난 다음부터 나는 살아갈 흥미를 잃어버렸다고. 그 이후 내 인생은 전부가 더부살이야. 알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인생 말이야. 기껏 열심히 살아봐야 세상 사람들은 내 한 쪽 눈알만 바라보며 속으로 비웃고 있을거라구. 머슴의 아들한테 당한 애꾸 주제에 지가 잘 되어봤자 얼마나 잘되려고?

형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리고 끝없는 좌절을 몰고 왔던 어린 날의 그 섬뜩하도록 무섭게 울렸던 총소리. 비록 장난감 총이긴 했으나 그 총구로부터 뿜어 나왔던 한 발의 총성은 형이 순탄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미래의 궤도를 십시간에 뒤흔들어 놓았다. 형이 돌이킬 수 없는 자포자기의 넝쿨 속으로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저 굴절된 과거를 지워줄 수는 없는가?

어린 김현수는 연민에 젖은 채 형이 장롱의 구석구석을 헤집고 있는 걸 망연히 서서 바라보고만 있었다. 김현수가 고교시절 내성적으로 깊게 가라앉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왜곡된 삶을 살기 시작한 형의 이력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들은 단 두 형제뿐이었으므로 형이 느끼는 감성은 창호지에 물이 스며들 듯 동생에게도 자연스럽게 전가되었다.

김현수가 지방도시의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 진학 시에 의과대학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그의 성격에 부합되어서 인지, 아니면 형으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이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형이 난봉꾼이 되어 여자화 노름에 미쳐 돌아가 아버지의 재산을 야금야금 갉아 먹으며 도시를 배회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의과대학에 진학한 후 졸업할 때까지 6년간을 서울생활을 하면서 김현수는 되도록 고향에 내려가는 것을 피했다. 방학이 되어도 밀려 있는 학과공부 때문에 귀향할 수 없다는 전갈을 보내고는 서울 하숙집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 무수한 시험과 공부에 찌든 의과대학은 별다른 추억을 남겨주지 않았다. 대학 졸업 후 전

공으로 일반외과를 선택했고, 5년의 수련의 과정을 마쳤다.

그가 군의관으로 근무할 무렵, 형은 노름에 미쳐 거금을 날리고 끝내 집안 재산을 거들내고 말았다. 부자는 망해도 삼 대는 버텨낸다는데 김현수의 집안은 그 다음 대까지도 못갈 형편이었다. 아버지는 몸 저 누웠고 집안은 빚쟁이들이 몰려들어 풍비박산이 되었다.

김현수는 생각했다. 어차피 아버지의 재산은 장자인 형이 물려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자신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형이 물려받을 재산을 일찌감치 말아 먹던지 태워 먹던지 자기의 몫이지 동생인 내가 쓴 소리를 할 건더기는 없다. 단지 곁에서 지켜보기가 안타깝고 가슴 쓰라린 일이긴 하나, 그동안 학교나 수련의 시절에 어려움 없이 공부를 마칠 수 있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자. 이제 나는 홀로 서서 천석꾼의 재산을 혼자서 일구어 내어 옛날의 영화를 되찾으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처럼 무한정 땅이나 파고 곡식을 거두는 일로서는 재산을 축적하기에는 이미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김현수는 집안의 몰락이나 파락호 신세가 된 형의 끝없는 분탕질에 애써 외면하려고 했다. 그것은 형의 몫이다. 나는 원래가 빈털터리였으니 아까워 할 게 조금도 없지 않은가. 나의 시대에는 내 스스로 이룩한 내 것만을 갖겠다. 형은 어차피 자기가 차지할 재산을 갖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나, 노름에 전 재산을 탕진하나 잃을 것은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 시기가 앞 당겨졌을 뿐이다. 그는 몰락한 집안과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그렇게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생각했다.

김현수는 전문의가 된 후에 입대 했다. 군대생활 역시 다른 이들에 비하여 특이할만 한 것은 없었다. 군의관 대위 때 결혼을 했다. 선배가 소개해준 양가집 딸이었다. 물론 열쇠 세 개 따위를 받는 몰염치한 짓은 하지 않았다.

그는 고향을 떠나 오랜 세월을 보냈으나 한시도 고향을 잊어본 적이 없었으며 결코 잊으려고도 애쓰지 않았다. 군의관 생활이 끝나 제대를 하면 즉각 귀향하리라고 굳게 마음먹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의 집안이 어디에서부터 꼬여들기 시작했는지 그 정확한 매듭을 찾아내어 자신의 손으로 풀어놓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던 그가 제대를 앞둔 그 해 겨울밤, 강변이 내려다보이는 산성마을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으로 인해 그의 생애에서 피할 수 없는 한 운명과 맞닥뜨리게 될 줄은 그 자신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계속> ☞